

'이슈잇수다' 전북PD상 영예

(KBS 전주방송)

전북PD연합회 주관 시상식서 조선미인별전 등 총 6편 수상

한국PD연합회 전북PD협회(회장 황운택)가 주관하는 '제17회 전북PD상' 시상식이 지난 2일 전주 오벨리스 웨딩홀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KBS전주의 '이슈잇수다' 등 총 6편이 수상했다. TV정규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KBS전주 이슈잇수다(연출 이휘현·설장미)는 '수다'라는 예능적 재미와 시사 정보의 적절한 균형으로 젊은 시청자들에게 지역의 이슈를 흥미롭게 전달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2월 첫 전파를 탄 프로그램은 김승수 전주시장과 최강희 전북현대 감독 등 지역 유명 인사들이 출연해 화제를 뿌렸다.

TV특집부문 수상작 KBS전주 뮤지컬드라마 '조선미인별전'(연출 김대현·허유리)는 한국적 뮤지컬 드라마 모던 창작이라는 참신한 시도로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조선 시대 미인선발대회를 배경으로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청춘의 이야기를 담은 이 드라마는 '한국형 라리랜드'라는 평을 얻었다.

이와 함께 라디오 정규 수상작은 17년 째



한국PD연합회 전북PD협회(회장 황운택)가 주관하는 '제17회 전북PD상' 시상식이 지난 2일 전주 오벨리스 웨딩홀에서 열렸다. 사진은 수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수상하고 있는 JT전주방송 '그대곁에 전세영입니다'(연출 정혜강)에게 돌아갔다. 이 프로그램은 격조 있는 진행과 구성으로 청취자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라디오 특집 수상작은 전주MBC '청춘을 들려다오'(연출 장인석·이충훈)가 차지했다. '청춘을 들려다오'는 지역에서 살아가

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토크와 음악으로 결합한 콘서트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소통창구 역할을 해왔다.

한편 TV 특별상과 라디오 특별상은 전주MBC '新 열수! 우리가라'(연출 박규현·강조아)와 TBN전북교통방송 'TBN차차차'(연출 김민경)가 각각 수상했다.

/정해은 기자

전북작가회, 신임회장에 김종필 동화작가 추대

(사)전북작가회의는 새로운 수장에 김종필 동화작가(54·교사, 사인)를 추대했다.

전북작가회의는 지난달 26일 최명희문학관 세미나실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김종필 동화작가를 신임회장으로 추대하고, 정동철 시인과 유강희 시인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사무처장은 김형미 시인이 맡는다.

이날 총회에서는 기관지 '작가의 눈'과 회원수필집 발간, 월례문학토론회, 전북고교생 백일장, 목정문화재단과 함께 하는 백일장, 전북작가회의 30주년 기념행사, 전국작가대회 참



가 등 2018년도의 사업도 확정했다.

김종필 신임회장은 "전북작가회의는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혼자서 길을 걷은 적이 없다. 건장한 시민 사회와 어깨를 견고 연대하고 소통하며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며 달려왔다"며 "이는 우리의 자긍심이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작가는 글을 통하여 세상과 만나기 위하여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버림받은 하찮은 것에 눈길을 준다. 험겨워 하면서도 늘 더 좋은 세상을 꿈꾼다"면서 "새로 출발하는 집행부는 좋은 세상을 갈망하는 문우들을 위하여 봉사할 준비가 되어있다. 창작의 혼을 불태우고 있는 회원들의 글과 발언에 주목하고 격려하고 기꺼이 술잔과 어깨를 빌려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해은 기자

정음시립박물관,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정음시립박물관은 2018년 슬로건을 '한국전통문화체험 1번지'로 정하고 전통문화체험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통문화체험 소재는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단연 독보적인 정음사, 상춘곡, 동학, 우도농악 등의 정음시립박물관 소장 자료를 활용해 전통문화체험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중국 우한시의 국제청년커뮤니티 회원 대학생들이 정음을 방문하게 되었고, 2월 3일 정음시립박물관에서 한국전통문화를 체험했다.

이번 체험은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생활용품인 예코백을 소재로 정음사여인상, 정음사, 내장산에기단풍, 단이와풍이, 정음시로고 등을

디자인했다.

국제청년커뮤니티는 중국 우한시의 우한대학교 외 100여개 대학 소속의 대학생 회원 8만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정음시는 이번 중국 대학생 전북힐링여행 코스에서 정음의 전통문화체험을 맛보게 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중 국제청년커뮤니티 대학생 회원들의 자유여행을 정음으로 유인할 계획이다.

정음시립박물관에서는 2018년에 시민들의 삶 속에서 녹아 나와서 우수한 정음문화로 발돋움 하고 있는 쌍화탕, 근대 신종교를 소재로 시민들과 소통하며 연구하고 기록을 남길 기획특별전을 기획하고 있어서 기대가 모아진다. /정음=김대환 기자



익산의 문화유산 일제강점기 사진으로 살펴보다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 자료집 발간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등 소개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관장 이병호)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 촬영한 익산 지역의 사진을 모은 '일제강점기 사진으로 보는 익산의 문화유산'을 발간했다.

이 자료집은 익산 지역을 조사했던 82매의 유리건판사진과 당시 상황을 기록한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23건을 소개한다.

1910년 촬영한 아직 콘크리트가 덮이지 않았던 미륵사지 석탑을 비롯하여 나무가 울창한 왕궁리 유적과 기울어진 왕궁리 오층석탑 등 현재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주요 문화유산들의

가장 오래된 사진을 담았다.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고적조사·보존·지정·수집과 관련된 문서를 총망라하였다. 초기 고적조사사업을 주도했던 도쿄제국대학 건축학과 교수 세키노 다다시(關野貞)의 고적조사 카드 가운데 익산 지역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함께 수록했다.

이병호 관장은 "이 자료집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문화재 정책이 식민지배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이해하고, 당시 조사된 문화유산의 현상과 실태를 연구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집의 전자파일(PDF)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의 누리집에서 무료로 내려받기 해서 이용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전주문화재단 '마을술사 양성 컨설팅' 2017 지역문화컨설팅 우수사업 선정

(재)전주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2017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사업'에서 전주시와 전주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마을술사 양성을 위한 마을이야기 및 교육과정 개발 컨설팅'이 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사업은 해당 지역의 대학, 지역문화기관 및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지역의 문화정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는 것이다.

재단은 전주시 완산동을 시범 사업 대상으로 선정, 다양한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마을사업을 전개하고 실행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마을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마을술사 시민위원'을 모집해 마을주민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조직기반을 마련했다.

정정숙 대표이사는 "완산동을 시작으로 최근 전주시 내에서도 이번 컨설팅을 활용한 마을사업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며 "2017년 사업을 통해 완산동 주민 및 마을 내 유관기관에서 사업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마을공동체 및 교육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유남 기자

설 명절 '福슬 福슬 하계' 전통체험 하러 가자

전통문화전당, '키움 복슬 복슬 체험교실' 운영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대수)은 설을 맞아 다양한 체험교실을 마련한다.

전당에 따르면 설 당일을 제외한 15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모음인 '키움 복(福)슬 복(福)슬 설맞이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15일 한지 소망액자 만들기과 가가호호 설만두, 17일 '학과를 만나', 18일 우든불-매듭인형 만들기 등으로 꾸며지며 오전 10시와 오후 2시 하루 총 두 차례씩 진행될 예정이다.

체험별 2인 1조로 총 스무 가족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이번 설맞이 체험교실은 한 팀당 5,000원의 체험비를 받고 있으며, 선착순 모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같은 기간 전당 내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도 전통한지를 소재로 한 다양한 체험활동이 진행된다. 한지 명명어 등 만들기·색동하회탈 만들기·일월 오봉도 관화체험은 한지문화체험실에서, 색동 한지 뜨기 체험은 한지제조체험실에서 각각 진행된다.



어린이와 노인을 동반한 가족은 누구나 무료로 체험 가능하다. 단 한지 공예체험의 경우 가족 당 1개 이상 초과 시 유료로 진행되는다.

이와 함께 전당 야외마당과 센터 1층 로비에서는 투호, 고리던지기, 단체게기, 뽕박이 활쏘기 등 전통놀이 마당이 펼쳐진다.

설맞이 체험 프로그램 신청접수는 9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www.ktcc.or.kr), 전주시(www.jonju.go.kr) 공문·행사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zzzwe@naver.com) 또는 팩스(283-1201)로 신청 가능하다. /정해은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